



에코프로비엠의 자회사이자 유럽 현지법인인 에코프로비엠 헝가리는 지난 27일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와 ECA 파이낸싱 계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김병구 HSBC 수석본부장, 신유근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본부장(부행장), 최은호 에코프로비엠 대표이사, 정재용 한국무역보험공사 프로젝트금융본부장, Dorothee Regazzoni BNP 파리바 한국대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헝가리 양극재 공장건설 속도

공적수출신용기관 투자금 1.2조 확보

에코프로비엠이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을 통해 약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자금을 확보했다. 국내 양극재 기업이 해외 현지 투자에 대해 조 단위 ECA 자금 지원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에코프로비엠은 이 자금을 이용해 에코프로 그룹의 첫 해외 사업장인 헝가리 데브레첸 양극재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30일 에코프로비엠에 따르면 지난 27일 자회사이자 유럽 현지법인인 에코프로비엠 헝가리가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와 ECA 파이낸싱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8억 6000만 달러이다. ECA 파이낸싱은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이 자국 기업의 수출 등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직접

대출 및 보증, 보험을 제공하는 금융 지원을 뜻한다. 이번 자금 지원은 직접 대출 및 보증, 보험 형태로 이뤄진다. 한국수출입은행은 1억8000만 달러의 보증 및 2억5000만 달러의 직접 대출을 진행하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4억 3000만 달러의 보험을 제공한다.

에코프로비엠 헝가리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 및 보험을 바탕으로 BNP, HSBC 등 5개 글로벌 상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예정이다.

에코프로비엠은 헝가리 데브레첸에 연 10만8000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기지를 건설 중이며 이에 소요되는 투자비 규모는 총 12억8000만 달러에 달한다.

에코프로비엠의 헝가리 공장은 2025년 상반기 내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공장이 가동되면 유럽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차현정 기자

‘홍해사태’ 장기화에 해상운임 급등 국내 조선사, 컨테이너선 수주 늘어

기술력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 회복
HD한국조선해양, 4.7조 규모 수주
삼성중공업, LNG 선박 6척 계약

중국이 독점하던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를 늘리고 있다. 홍해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해상 운송 수요가 늘면서 컨테이너선 발주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사들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컨테이너선 시장 점유율 회복에 적극적인 모양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계에 한동안 끊겼던 컨테이너선 일감이 다시 채워지고 있다. 홍해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해상운임이 강세를 보이며 컨테이너선 가격도 올라서다. 양대 운하 중 하나인 수에즈 운하는 지정학적 이유로, 파나마운하는 기상 악화 문제로 통행 차질을 겪고 있는 점이 요인으로 꼽힌다

해상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6월 셋째 주에 전주보다 96.38p 오른 3475.6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마지막 주 1730.98 이후 1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22년 8월 셋째 주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세계 최초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아네 머스크호’의 모습. /HD현대

앞서 국내 조선사들의 고부가 선박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컨테이너선 수주는 모두 중국 조선사들의 몫이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국내 조선사가 수주한 상선 가운데 컨테이너선은 단 한 척도 없었다. 전 세계에서 발주된 컨테이너선은 모두 양쯔강 조선·장난조선 등 중국 조선사들이 수주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국내 조선사들이 컨테이너선 수주에 다시 집중하면서 업계가 새로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3일 글로벌 3위 해운사인 프랑스 CMA-CGM과 18척 규모의 컨테이너선을 건조하는 의향서(LOI)를 맺었다.

최근 신조선가를 고려한 수주액이 34억달러(한화 약 4조7000억원)에 달한다.

CMA-CGM이 주문한 선박은 내연기관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두 가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중연료 추진선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6척과 12척을 순차적으로 건조해 2027~2028년 인도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이 최종 성사되면 HD한국조선해양은 약 155억달러치를 수주한다. 이로써 일찌감치 올해 목표치인 135억달러 이상을 달성한 것이다.

삼성중공업 또한 CMA-CGM으로부터 지난 17일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선박 6척을 수주했다. 또한 해당 해운사와 1만5000TEU 규모 컨테이너선 12척 공급에 관한 협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중 무역 갈등이 해상 물류 시장으로 번지는 점도 국내 조선사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 조선사에 발주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해상 물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력과 신뢰성을 갖춘 한국 조선사들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HD현대오일뱅크 “변화, 선도하겠다”

충남 본사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

HD현대오일뱅크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충남 대산 공장 본사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기근속 임직원 337명과 우수 거래처 9개사에 포상금이 지급됐다.

HD현대오일뱅크 주영민 대표이사는 “그동안 HD현대오일뱅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임직원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경쟁사가 경험하지 못했던 역사의 고난을 슬기롭게 헤쳐오면서 130만평, 하루 69만

배럴 규모의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964년 충남 대산에서 국내 최초 민간 자본 정유 회사로 시작해 HD현대셀베이스오일, HD현대케미칼 등 합작회사를 설립하며 종합 에너지 회사로 성장했다.

주영민 대표이사는 이어 “최근 에너지 전환, 어려운 시장 지표 등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회사의 흥망을 가르는 변곡점 위에서 ‘우리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변화를 선도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자”고 당부했다. /차현정 기자

KT “AI가 만든 휴양지 콘텐츠 어때요”

‘지니 TV AI트래블뷰’ 선봬

KT가 국내 인터넷TV(IPTV)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지니 TV AI트래블뷰’(이하 AI트래블뷰) 채널을 선보였다고 30일 밝혔다.

AI트래블뷰는 유명 도시나 아름다운 휴양지의 이미지와 사운드를 AI로 생성해 제작한 콘텐츠 채널이다. 지니 TV의 ‘#848번’과 ‘#849번’ 채널에서 광고 없이 24시간 무료로 볼 수 있다.

채널 #849번에서는 오는 7월 파리 올림픽에 맞춰 파리 관련 콘텐츠를, 채널 #848번에서는 여름휴가 테마로 뉴욕, 베네치아, 태국, 몰디브 등 인기 있는 도시나 아름다운 휴양지 관련 콘텐츠를 볼 수 있다. KT는 두 채널을 통해 매달 5편씩 각각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AI트래블뷰’ 콘텐츠는 AI로 영상을 분석하고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KT가 자체 개발한 솔루션 ‘매직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해민 수습기자 hyem@

“주주·고객 등 가치제고 최우선 삼을 것”

HS효성, 오늘 공식 출범

임직원 1천여명과 타운홀미팅
조현상 부회장 “가치경영 펼칠 것”

“HS효성은 주주와 고객, HS효성 가족,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삼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가치 경영’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조현상 부회장은 지난 27일 HS효성 그룹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객과 주주에게 훌륭한 가치를 제공하고, HS효성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가치’를 최우선의 DNA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30일 HS효성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공식 출범을 맞이해 첫 행사로 타운홀 미팅 ‘HS효성 토크 투게더(Talk Together) 시즌 1’을 개최했다. 국내 최초의 장애인 스마트팜에서 봉사활동도 진행했다.

효성 역사상 처음 이뤄진 HS효성의 타운홀미팅은 의례적인 출범식 대신 서로 소통함으로써 임직원들과 함께 밝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는 조 부회장의 의지가 담겨있다.

조 부회장은 평소 즐겨 읽는 청바지와 후드집업 차림으로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 HS효성의 비전을 직접 발표하고, Q&A도 직접 주재하며 임직원들과 소통에 나섰다.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임직원들도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타운홀 미팅서 직원들의 요청에 셀카를 찍고 있다. /HS효성

조 부회장의 소통 행보에 적극 호응했다. 세계 각지의 사업장에서 회사의 비전, 인사제도, 조직문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회사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HS효성은 구성원들과의 소통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봉사활동으로 이어갔다.

지난 5월 28일 HS효성 나눔봉사단장인 조현상 부회장과 HS효성, HS효성첨단소재,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HS효성더클래스 등 임직원 30여명은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국내 최초 장애인 스마트팜 ‘푸르메소셜팜’을 찾았다.

푸르메소셜팜은 발달장애 청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하며 정당한 급여를 받으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

해 푸르메재단이 운영하는 첨단 스마트농장이다. HS효성 임직원들은 발달장애 청년들과 함께 토마토 등 농작물을 수확하고, 이를 상품화할 수 있도록 가공, 포장 등을 함께하며 힘을 보탰다. 효성은 지난 2013년부터 저소득층 장애아동이 재활치료비와 소외된 비장애형제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푸르메재단과 12년째 함께하고 있다.

조 부회장은 “HS효성의 첫 외부 행사를 우리보다 남을 위해 시작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HS효성은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과 안성훈 효성중공업 부사장을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와 함께 원본 부장에 신덕수 전무(전 효성 전략본부 임원), 재무본부장에 이창엽 전무(전 효성 재무본부 임원)를 선임했다.

/차현정 기자